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8

### 관세음보살의 양치질 세트



양류관음도. 고려 후기, 일본 천초사(淺草寺) 소장.

알약이 만들어진 후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무엇일까? 하루에 1억 알 이상이 팔린다는 이 약의 이름은 알리신산이 주로 포함된 아스피린이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알리신산은 현대인에게 거의 만병통치의 약이다.

양류(楊柳)는 버드나무라는 뜻이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수인성 식물이고, 잔뿌리가 땅속에서 그물처럼 서로 엉켜서 강이나 뚝을 흥수나 물난리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선 어릴 때 연필 굵기의 버드나무 가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는데, 아마 여기에 많은 약리작용이 있었던 것 같다.

#### 아스피린 주성분 알리신산은 버드나무서 추출

#### 관세음보살의 정병에는 버드나무 가지 담겨

과거에는 봄이 오면 버들가지 따서 껌처럼 씹고 다녔다.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신산에는 해열, 진통, 소염,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에 진정 효과가 있어 겨우내 시달린 몸과 마음을 달래고 질병예방을 위해 버들피리를 불었을 것이다.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는 대부분 양류관음이 나온다. 버드나무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물가를 배경으로 하는 수월관음도도 많았다. 전통적인 수월관음도를 보면, 바위에 좌정한 관세음보살 왼편으로 솟아나온 바위의 유리그릇 위에 정병이 있고, 정병 속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있다.

버드나무를 한층 더 강조한 수월관음도도 있다. 1310년 경 불화나 불상을 조성하는 책임자인 금어(金魚)였던 혜하(慧虛) 스님이 그린 양류관음도다. 일본 천초사(淺草寺)에 소장된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는 아예 광배를 버들잎 형태로 그리고, 마치 물방울처럼 생긴 버들잎 속에 서 있는 관세음보살을 그려냈다.

관세음보살 발아래에는 평평한 암반과 여기에 연이어 연못이 길게 놓여 있고, 왼쪽 모서리에는 보살을 우러러 보는 선재동자가 배치돼 있다. 이

런 대각선 구도는 다른 양류관음과 비슷하지만 화면 오른쪽의 절벽과 쌍죽(雙竹)이 없어지고 버들잎 광배가 화면의 중심을 압도하는 구도로 매우 독특한 특징이다.

관세음보살의 풍만한 얼굴은 다른 수월관음의 얼굴보다는 좀 더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또한 부드러운 모습도 세련된 어깨의 곡선이나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신체의 흐름과 함께 오른쪽으로 휘어진 날씬한 자세는 당시 귀족의 기품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양류관음도에는 '해동지남해허(海東藏納慧虛筆)'이라는 화가가 있어 혜하 스님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치남'이라는 어리석은 종이라고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선사의 길을 가야하는 데 화승의 길을 가는 자신을 조롱한 것인지도 모른다.

버드나무가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왜 관세음보살은 버들가지를 들고 있을까? 어떤 이는 "5세기 때 중국 기록을 보면 버드나무(楸)를 치료제로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에서 버들가지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학계에서는 추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중국에서, 당

대(唐代)에 성행하는 '절양류(折楊柳)' 풍습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절양류란 이별하는 사람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주는 풍습을 말하는 것이다.

승려인 내가 보기엔 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탁발이나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휴대하는 18종 도구의 하나로 수양버드나무 칫솔을 규정했다. 이를 '단타카스타' 즉 치목(齒木)이라 한다.

옛 기록에 보면, 인도의 어느 신도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후, 버드나무가지를 꺾어서 양치질을 할 도구를 만들어 드렸다고 한다. 즉 버드나무는 양치질용인 것이다. 그래서 물그릇인 유리그릇 위에 정수가 든 정병을 두고 그 위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은 것은 정갈한 관세음보살의 양치질세트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치과마다 수월관음도를 한 분씩 모셔 걸어서 깨끗한 치아습관을 장려하면 어떨까?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4 포살(布薩)



그 동안 나를 용서해준 시간들이 있어 또 다시 부처님 앞에 앉는다. 두근거리는 고백이 경만 위에 누운 종이처럼 그 시간들을 짚어내면, 팔만대장경 한 장 또 쌓인다.

그 동안 나를 용서해준 이름이 있어 또 다시 그 이름 앞에 앉는다. 두근거리는 고백

이 종루에 걸린 범종처럼 그 이름을 불러내면, 나를 용서했던 그 시간이 또 다시 흘러간다.

어디선가 어제까지의 '나'를 묻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대중은 외줄을 타듯 그 뜨거운 목소리 위를 걸어간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백을 읊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 벗어놓은 신발이 땀물 위에서 기다리고, 또 한 번 용서받은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땀물 위의 신발을 찾아 신고 나서듯 나는 '나'를 찾아 신고 참회 없는 날을 걷고 싶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 한국의 **선시감상** 10 조선 사명유정 선사 '복주성 누각에서 자머(福州城樓)'

###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

夜久角聲微 (야구각성미)  
千家人迹稀 (천가인적희)  
露生池館草 (노생지관초)  
蠶入定僧衣 (상입정승의)  
悄悄坐無語 (조조좌무어)  
悠悠漸息機 (유유점식기)  
星隨月墮嶺 (성월월타령)  
城樹嚙鴉飛 (성수서아비)

밤 깊어 호각소리 찾아들고  
동네에는 인적이 드무네.  
이슬은 못가 객사의 풀잎에 맺히고  
반딧불은 선정에 든 승려의 옷에 드네.  
고요하여 저절로 말이 없어지고  
유유하여 점차로 기심이 쉬어지네.  
별은 돌아가고 달은 고개 마루에 떨어지는데  
복주성의 나무에 새벽 까마귀 날아드누나.

조선 사명유정(四溟惟政; 1544~1610) 스님은 '적장의 머리가 바로 조선의 보배'라고 한 일화로 유명한 임진왜란기의 대표적인 승군 지도자이다. 스님은 13세에 출가한 후 18세에 선과(禪科)에 급

제, 임진왜란을 당해 대부분을 세속에서 보냈다. 스님의 시문은 많은 부분 전쟁터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도 전쟁의 참상과 승려로서 전쟁에서 보내는 심경, 더불어 백성의 고난에 대해 염려하는 지극한 자비

심을 드러내고 있다. 사명 스님은 "보현의 행을 성취하고 부처님처럼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 세계가 다 없어져야 이 서원도 다하여지이다"라는 서원을 전장에서 몸소 실천했다. 스님은 수행의 고백 또한 늦추지 않았는데 위의 시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련에서는 깊어가는 밤을 소리의 찾아들이로 조망하고 이어 풀잎에 맺힌 이슬과 좌선하는 스님의 옷자락에 날아드는 반딧불을 세밀하게 포착했다. 경련에서는 무인의 경지와 분별하는 마음이 점차 쉬어지는 선정의 깊이를 읊었고, 미련에서는 선정에 들어 밤을 꼬박 새웠음을 시간의 경과로 보였다.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흐름, 선정의 경지까지를 동중정(動中靜)으로 차분히 그려낸 구도가 돋보인다. 전장에서 도 선정에 드는 스님의 구도 열은 처림상정(處染常淨)의 또 한 모습이라.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주)현대에너지 2011년 최신행

**농협용자 1년치 7년분할상환**  
농협용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명 ~ 20명까지

전조기(11제본) 전조기(22제본) 전조기(33제본)

본사공정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 瑩 普 洱 茶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인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 제조원 : 다영보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비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